

진북음식디미방

2014



생활속의문화공간
진북문화의집



진북음식디미방

발행일 2014년 12월 1일

펴낸곳 진북문화의집

펴낸이 한천수

주 소 전주시 덕진구 팔달로 340-30(진북동 364-7)

전 화 063_275_0186 팩스 063_271_0187

이메일 jb_cc@daum.net 홈페이지 <http://jinbuk.jjcp.or.kr>

디자인 현실디자인(www.hyunsil.co.kr)

※ 이 책자는 전주시 보조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.

목 차

추억을 요리하다

- 시래기 없어도 시래기밥이라 부르는 / 한봉희 _ 시래기밥 - p.9
사각사각 달큰, 할머니 옛날이야기처럼 / 백영순 _ 동아정과 - p.13
황금빛에 머금은 기억, 추억 / 이행순 _ 늙은호박범벅 - p.17
진한 향, 가득한 정을 부친다 / 고미자 _ 양하산적 - p.21
고소한 초가을의 향기를 가두다 / 백명순 _ 들깨송어리부각 - p.25

먹는 것의 즐거움

- 우리 할머니 꽃게탕 / 김용순 _ 꽃게탕 - p.31
쫄득하고 건강한 즐거움 / 성문희 _ 찹쌀피자 - p.35
수제비의 변신은 무죄 / 정선훈 _ 팔색 수제비 - p.39
고춧가루를 사랑한 가족 / 김령순 _ 매운LA갈비 - p.43
일편단심, 변할 날이 있으랴 / 배영희 _ 고등어김치찜 - p.47
다리도 없이, 껌질도 없이 / 정해경 _ 연중 백숙 - p.51

일상의 밥상

- 엄마의 육개장, 엄마의 오누죽 / 김응계 _ 사골육개장 - p.57
알싸하게, 톡! 쏘는 매력의 지존 / 송봉희 _ 홍어탕 - p.61
나이 어린 며느리는 추어탕의 고수였다 / 정정례 _ 추어탕 - p.65
봄부터 가을까지, 변함없이 함께 / 한순자 _ 열무물김치 - p.69
광주 대표요리, 전주에 상륙하다 / 태묘남 _ 전주 오리탕 - p.73

보약이 되는 밥

- 엄마 마음 / 배순례 _ 한방문어숙회 - p.79
도라지, 도라지, 백도라지 / 이영례 _ 도라지골뱅이무침 - p.83
장아씨의 달인이라 할 만하지 않은가 / 황미선 _ 일곱가지 장아찌 - p.87
딸들을 위한 날씬한 특별식 / 김옥희 _ 단호박영양밥 - p.91